

어머니·딸 dyads를 중심으로 한 의복 선호·소유 연구

김 재 숙 · 이 소 라*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Thibaut과 Kelley(1959)의 상호의존이론(a theory of interdependence)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밀접한 어머니와 딸을 dyads로 하여 의복의 선호와 소유 사이의 관계를 아동과 청소년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피험자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75명)와 고등학교(64명),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139명)로 편의 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의복의 측정 도구는 의복범주(2)×디자인의 복잡성(2)×여향성·남향성(2)의 요인설계로 하여 24종류의 의복 자극물로 구성되었으며, 자극물에 대한 타당성은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 및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의복 선호와 소유의 각 질문에 대해 제시된 8개의 자극물 중 피험자에게 세 개를 고르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의복 선호와 소유에 대한 어머니와 딸 dyads 사이의 관련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자극물은 의복범주, 디자인의 복잡성, 여향성·남향성의 세 요인으로 다시 분류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선택된 세 자극물을 요인별로 평균을 내어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딸의 dyads를 의복 선호와 소유를 통해 알아본 결과 자신의 의복 선호 경향이 상대방의 의복을 평가할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하고 있는 의복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의복과 딸이 보는 어머니의 의복에 있어 더 상관관계가 많이 나타나 두 관계가 선호에서보다 더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집단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전체 집단에서처럼 자신의 선호 의복과 상대방에게 권해주는 의복간에 여러 요인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의복의 선호 및 소유 변인별 상관관계는 더 적게 나타났다. 소유요인에서 딸 자신의 의복과 어머니가 보는 딸의 의복간에 관계가 있게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교 집단에서도 자신의 선호 의복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의복간에 세 요인 모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령집단의 의복 선호와 소유의 어머니·딸 dyads 결과를 종합하면 고등학교 어머니의 dyads에서 좀더 밀접한 관련이 관찰되었으며, 선호 dyads에서는 디자인의 여향성·남향성이, 소유 dyads에서는 디자인의 복잡성이 좀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의복의 선호에서 딸과 어머니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하였으며, 어머니와 딸의 의복선호·소유의 dyads 관계는 자녀들의 연령이 증가할 때, 좀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